맺는 말

지금의 당면한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날마다 잘못되어 가고 백성들의 기력은 날마다 소진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은 권세 있는 간신이 국정을 농락할 당시보다 더 심한 듯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권세 있는 간신이 날뛰던 때에는 선대 임금들의 좋은 정치의 영향이 그래도 다 없어지지 않아서, 조정(朝廷)에서 하는 정치가 비록 혼란스러워도 백성들의 힘은 아직도 버텨낼 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선대 임금들이 남긴 좋은 정치의 영향은 이미 사라지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남겨 놓은 악습만 바야흐로 꽃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여론을 비록 시행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힘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비유한다면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한창 젊을 때 주색에 빠져 몸을 이리저리 많이 해쳤어도 그 때는 혈기가 왕성한 때라 몸이 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그 해독이 노쇠함을 틈타서 사납게 나타나, 비록 조심하며 몸을 보양해도 원기(元氣)가 이미 손상되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일이 참으로 이와 같으니, 앞으로 10년이 못되어 화란(禍亂)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보통사람들도 열 칸의 집과 100묘(畝)*의 밭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자손은 오히려 그것을 잘 지켜 조상에게 욕되지 않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하께서는 선대 임금들로부터 백년의 사직과 천리의 강토를 물려받으셨는데도 환란이 곧 닥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해결책을 찾는다면 정확하게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일이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며, 능력이 비록 부족해도 도리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하께서는 권력의 중심에 계시고 사리에 밝으시어, 시대를 구제할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백 번 죽는다 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도끼에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더라도 저 또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하께서 언로(言路)*를 확 열어 놓고 의견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겠다고 간절한 말로 수교(手敎)*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실로 전하의 기대를 저버리

- 묘(畝) : 전답 넓이의 단위. 고대 주공(周公)이 처음 제정한 것으로 전답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니 시대에 따라 그 넓이가 변하였다.
- 언로(言路) : 신하(臣下)들이 임금께 말을 올릴 수 있는 길. 앞에 나옴.
- 수교(手敎) : 임금이 손수 써서 발표하거나 알리는 글. 앞에 나옴.

는 것이 되므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극언(極言)•도 아낌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고 난 뒤라서 정신은 흐릿하고 손도 떨리며 말이 속되고 중언부언하였으며 글자의 획도 겨우 이루었으므로 볼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요원한 것 같아도 사실은 현실적이고 계책이 동떨어진 듯해도 사실은 절실합니다. 비록 하 · 은 · 주 삼대(三代)의 제도는 아니지만 참으로 왕도정치(王道政治)•의 근본으로서, 이것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어 왕도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익숙하게 검토하시며 천천히 연구하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전하께서 취하고 버릴 것을 결정하신 다음, 널리 조정의 신하들에게 하문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가부를 의논한 뒤에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신다면 매우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전하께서 저의 대책을 쓰신다면 그 진행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시행하게 하고 견고한 확신을 갖고 지켜 나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옛것만 지키고자 하는 꽉 막힌 세속의 견해 때문에 바꾸지 마시고, 올바른 것을 비방하며 헐뜯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3년 동안 이같이 하여 나랏일에 개선이 없

• 극언(極言) : 심한 말.
• 왕도정치(王道政治) : 임금이 어진 덕으로 백성이 잘 살게 다스리는 정치. 앞에 나옴.

고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며 군사들이 정예화 되지 않는다면, 전하를 속인 죄로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는 요사스런 말을 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한없이 격렬하고 절실하고 두렵고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설

이 글은 이 『만언봉사』의 끝부분으로 맺는말이다.

애초에 서울에 흰 무지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선조가 재이(災異)가 나타난 전통에 따라 신하의 바른 말을 찾는 구언(求言)의 하교를 내렸고, 그래서 율곡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을 쓸 당시는 율곡이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승정원의 우부승지(정3품)였다. 전체 내용은 당시까지의 조선사회의 문제점과 폐단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글은 서울에 흰 무지개가 나타난 이변으로 인하여 선조가 하교하여 쓰게 되었지만, 굳이 그 이변 때문에서가 아니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도 안되어 화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소신을 펼쳤다. 당시 상황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이전 시대의 권세를 부리는 간신들이 만들어 놓은 악습의 유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공교롭게도 10년은 조금 넘었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전란 초기에 왜군에게 맥없이 당하기만 하였다. 뒤늦게나마 의병들이 참여하고 또 바다에서 이순신이 승리하며, 그리고 명군의 참전으로 전세를 만회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선조가 통치를 잘한 결과라기보다 사대(事大)의 결과로서 대국인 명이 자신들을 섬기는 변방의 소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거부할 수 없었고, 의병

장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순신 개인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만약의 율곡의 상소 내용대로 개혁을 하였다면, 왜군의 침공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을지라도 개전 초기부터 속수무책으로 밀리지 않고 거뜬히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 보건대 당시 현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율곡의 혜안이 돋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6 · 26 직후의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부를 들어다 보면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하고, 지배층의 부정과 비리,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저출산, 안전사고의 증가, 불안한 자연환경, 온갖 범죄 등으로 점차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율곡의 논리로 보자면 바로 앞선 세대의 악습이 남아서 끼친 영향이만, 여태 그것을 개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폐단을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에게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참으로 거울로 삼아야 할 일이 아닌가? 개인과 국가의 천문학적 부채 부담, 해운회사와 조선회사의 부실이 그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今日則祖宗遺澤已盡, 權姦遺毒方發. 故淸議雖
금일즉조종유택이진 권간유독방발 고청의수
行, 民力已竭. 譬如有人少壯之時, 縱酒荒色,
행 민력이갈 비여유인소장지시 종주황색
戕害多端, 而血氣方强, 未見所傷, 及其晩年,
장해다단 이혈기방강 미견소상 급기만년
戕害之毒, 乘衰暴發, 雖謹愼調保, 元氣已敗,
장해지독 승쇠폭발 수근신조보 원기이패
不可支持. 今日之事, 實同於此, 不出十年, 禍
불가지지 금일지사 실동어차 불출십년 화
亂必興.
란필흥

遺澤: 남긴 은택/遺毒: 남긴 해독/縱酒荒色: 방종하게 술 마시고 거칠게 색을 밝히다/乘衰暴發: 노쇠함을 틈타 사납게 발병하다/不出十年: 10년이 못 되어

해석

오늘날의 상황은 선대 임금들이 남긴 좋은 정치의 영향은 이미 사라지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남겨 놓은 악습만 바야흐로 꽃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여론을 비록 시행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힘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이 한창 젊을 때 주색에 빠져 몸을 이리저리 많이 해쳤어도 그 때는 혈기가 왕성한 때라 몸이 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만

년에 이르러서야 그 해독이 노쇠함을 틈타서 사납게 나타나, 비록 조심하며 몸을 보양해도 원기(元氣)가 이미 손상되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일이 참으로 이와 같으니, (앞으로) 10년이 못되어 화란(禍亂)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小臣受國厚恩, 百死難報. 苟利於國,
소신수국후은 백사난보 구리어국

鼎鑊斧鉞, 臣亦不避. 況今殿下廓開言路,
정확부월 신역불피 황금전하확개언로

容受不諱, 手敎之下, 詞旨懇惻. 臣若不言,
용수불휘 수교지하 사지간측 신약불언

實負殿下, 衷情所激, 極言竭論. 而疾病之餘,
실부전하 충정소격 극언갈론 이질병지여

神惛手戰, 辭俚語複, 字畫僅成, 無足可觀.
신혼수전 사리어복 자획근성 무족가관

雖然, 其意似遠而實近, 其策似迂而實切.
수연 기의사원이실근 기책사우이실절

雖非三代之制, 實是王政之本, 行之有效,
수비삼대지제 실시왕정지본 행지유효

王政可復.
왕정가복

鼎鑊斧鉞: 형벌에 쓰는 가마솥과 도끼/詞旨懇惻: 말과 뜻이 간절하고 정성스럽다/衷情所激: 충정이 격한 것/極言竭論: 극언으로 말을 다하다/辭俚語複: 말이 속되고 중복되다/似遠而實近: 먼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가깝다/似迂而實切: 동떨어진 것 같아도 실제로 절실하다

해석

저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백 번 죽는다 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도끼에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더라도 저 또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하께서 언로(言路)를 확 열어 놓고 의견을거리낌 없이 수용하겠다고 내리신 수교(手敎)가 간절하고 정성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실로 전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되므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격한 것으로서 극언(極言)도 아낌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고 난 뒤라서 정신은 흐릿하고 손도 떨리며 말이 속되고 중언부언하였으며 글자의 획도 겨우 이루었으므로 볼만한 것이 못됩니다. 비록 그러하나 그 속뜻은 요원한 것 같아도 사실은 현실적이고, 계책이 동떨어진 듯해도 사실은 절실합니다. 비록 하 · 은 · 주 삼대(三代)의 제도는 아니지만 참으로 왕도정치(王道政治)의 근본으로서, 이것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어 왕도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